

서호인의 '소설처럼'



시를 넘어서는 시 -조정 시집 '그라시제라'

처음 시를 쓸 때에는 시에 사투리를 많이 썼었다. 서정성이니 향토성이니 같은 것에 대단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백석의 시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 백석은 평안도 사투리로 된 절창을 몇 편 남겼다. '여우난골죽' '모달불' '가즈람비' 같은 시들이 그렇게 탄생했다.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백석 시에 사용된 사투리의 본뜻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고난을 추가해야 했지만, 그것은 이 땅의 시 교육이 문제이지 백석의 시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그 뜻을 모르더라도, 백석의 시 전체를 조망하고, 입안에서 시어의 맛을 느끼고, 머릿속에 시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사투리 또한 우리의 언어다. 언어가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그릇이라면, 사투리가 그릇이 아닐 리 없다. 어떤 경우에는 사투리에 더한 감정과 한이 담기기도 한다. 백석의 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라면 "그라시제라" 하는 말을 금방 알아들었을 것이다. 당신의 말이 옳다는 뜻이다. 당신의 음성을 계속 들겠다는 뜻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당신의 언어를 믿겠다는 뜻이다. 제목의 뜻과 같이 조정 시인은 전라도 서남 지역 여성들의 언어를 받아들인다. 여성들은 월출산 아래 한동네에 산다. 근방 가까운 곳에서 혼인해 그 곳에 정착해 산다. 역사와 운명은 그들의 삶을 쥐고 흔들었다. 전쟁을 겪었고, 전후 학살을 보았고, 가족을 잃었다. 그런 중에 살아남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었고,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들의 감정과 한, 기쁨과 슬픔을 듣는 일과 다름없다.

'그라시제라'의 여성들은 돌아가며 화자가 된다. 입장을 바꿔가며 주인공이 되었다가, 관찰자가 된다. 먼데 이야기를 전하다가 북쪽 아주 가까운 곳의 일화를 공유한다.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에 함께 눈물짓다가, 고약하고 허튼 일에는 함께 성을 낸다. 우스운 일에는 함께 웃고, 고쳐야 할 것은 같이 바로잡는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내내, 내 곁에 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 같은 것이다. 짧은 시절의 그들의 비극과, 세월이 지나 얻은 그들의 해안이 우리네 어른들에게서 들었던 익숙한 억양으로 마구 뒤섞여 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뜻과 소리, 기억과 사연의 카니발이다. 이 카니발은 뜻밖에도 우리가 거대한 역사 속에 잠시 있었던 우리의 진짜 역사를 끄집어낸다. 선량한 개인의 역사가 어찌하면 진짜 역사일 수도 있음을, 즐거운 혼돈과 진득한 감동 속에서 넘치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라시제라'는 시집의 이름을 달고 나온, 시집을 넘어서는 책임지도 모른다. 넓게 보아 소설책이라 할 수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역사 서적이나 녹취록이 될 수도 있다. 풍부한 용례가 실린 언어학 자료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은 한 권의 시집이 된다. 시의 가능성과 보폭을 무한히 확장하는데, 서울말로 쓰인 시를 서구의 이론으로 분석하고, 수도권과 독자와 나누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시 문단과 출판의 현실에 목격한 울림을 준다. 호남 사람이라면,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 이 울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떠올리며 한 시절을 다시 호출할 수 있다. 호남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책의 그릇머리에 실린 서남 방언 색인이 책의 이해를 돕는다. 누구든 이 이야기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이므로, 그 언어에는 수많은 사투리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시인>

社說

'특혜 의혹' 부영골프장 협약서 조속히 공개해야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와 관련해 부영그룹과 전남도, 나주시가 2년 반 전에 맺었던 협약서 내용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교보 행정1부가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과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1심 판결과 같이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영그룹과 맺은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부영그룹이 나주혁신도시 골프장 부지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한전공대)에 제공하는 대가로 잔여 부지에 53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특혜라며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사회에선 한전공대에 부지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 대가로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種) 변경 및 상향을 해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협약서 내용이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의 필요성

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만하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부영그룹과 전남도, 나주시 등 3자가 2019년 12월 맺은 협약서 공개를 꺼리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거나 특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다. 당시 협약서는 4개 항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부영 측에 행정 지원을 약속한 제2항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도 제2항이 "부영측에 기부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특혜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골프장 잔여지 활용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키를 쥐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만큼 두 기관은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 말고 조속히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협약서 공개를 통해 특혜가 없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만이 부영골프장 잔여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호남 최저, 지역 격차 해소를

전남과 전북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수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민이 많은 탓인데, 지역 간 소득 격차가 노후 보장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으로, 50만 3200원에 그쳤다. 이어 전남이 51만 9400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 광주 지역 가입자는 54만 3800원으로 전국 10위였다.

반면 울산은 월평균 수급액이 75만 72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보다 20만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어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700원, 경기 59만 2100원, 경남 58만 3700원, 인천 57만 2700원 등이었다. 대규모 공단 등 일자리와 고

액 연봉자가 많은 지역이 대체로 수급액이 높았다. 지역별 수급액 평균은 56만 6800원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납입액과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수급액 차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 경제 상황 등과 연계를 수밖에 없다. 전남·전북의 경우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하다 보니 국민연급 수급액조차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소득 격차에 이은 노후 보장 격차가 지역 간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소득·노후 보장의 격차는 수도권 집중화 및 국토 불균형 개발과 무관치 않다. 그만큼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 대비를 위한 1차 사회적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모색되길 바란다.

無等鼓

건반이 부서질 듯 실재 없이 휘몰아치는 마지막 악양이 끝나자 환호가 쏟아졌다. 땀에 젖은 피아니스트는 의자에서 일어서자마자 '17살 소년'으로 돌아왔다. 무아지경 속에서 연주하던 그는 커튼콜에 무대를 오가며 속삭이듯 어쩔줄 몰라 했다.

지난해 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렸던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홍성원)과 임운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 협연은 이 공연을 '작관한' 이들에게 더욱 더 소중한 무대가 됐다.

반 클라이머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임운찬의 마지막 결선곡 라흐마니노프 '3번'은 경연 영상 조회수가 500만 회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클랄못'인 지인도 그의 영상을 수차례 보며 울컥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신라시대 '우륵'을 언급하고, 단테의 '신곡'을 번역본 별로 다 읽었다는 그의 인터뷰를 읽고 있으면 '작은 어른'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든다.

경연에서 화제가 된 또 다른 곡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도 지난해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했었다. 쉬

는 시간 없이 65분에 이르는 전곡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기립 박수로 환호했다.

오케스트라 공연의 매력은 다양한 협연자와의 만남이다. 광주시향은 4월 교향악축제에서 2021년 소벨 콩쿠르의 유일한 한국인 본선 진출자였던 이혁과 멘델스존 '피아노협주곡 1번'을 협연했다. 또 임운찬의 스승인 손민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도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7번'을 공연했다.

하반기에는 브렌델의 제자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폴 루이스가 브람스 '피아노협주곡 1번'(9월 17일)을 연주하며 백주영도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12월 23일)을 공연한다.

임운찬은 10월 6일 광주시향과 베토벤 '황제'를 협연하고 녹음 작업도 진행한다. 전국의 클래식팬들은 단 900석의 행운을 거머쥔 주인공이 되기 위해 8월 18일 '피켓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임운찬과 광주시향이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를 만들면 좋겠다. 무엇보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리나.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의료칼럼

건강한 광주를 위한 의사의 역할



김종선 광산구 의사회장·첨단우리 병원장

목과 예방의학, 정신질환 및 만사회적 성격 장애 등을 공부한다. 과학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을 배운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건 의료 정책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연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보면 약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뇨·고혈압·고지혈증·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많다. 내과·정형외과·신경과 등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을 받기 때문에 과다 복용 우려가 있고, 복용한 만큼 건강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돌보는 일 또한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이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연계한 만성 질환 예방 등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도시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력이 풍부해져야 기업들이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건강이 중요하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느 병원에 가야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보건소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열악한 노동 시장은 낮은 구매력, 낮은 교육 투자 등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만든다.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료가 필수이다. 공공 보건 의료는 광주 경제 발전의 주체인 셈이다.

학생 및 청소년의 정서적인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년 성교육, 성 관련 질환, 동성애 상담, 출산 등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와 논문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광주가 새로운 광주의료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광주 의료원은 보건소, 보훈 병원, 기존 대학병원 등과 중복되지 않는 광주 시민이 원하는 고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광주의 공공 보건 의료 인력들은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책임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며, 번아웃에 점점 많은 인력들이 공공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 의료, 중환자 의료, 중증 질환 치료, 신생아 및 산부인과 진료 등의 필수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광주의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 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대한 다각도의 장기적인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지금의 보건 의료 정책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포괄적 정책이 끊임없이 남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 국장, 보건소장의 의사 역할을 행정 인력이 대체하려고 하는 보건 의료 현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공공 의료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정부의 잘못된 설계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 현장의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건강 국장과 보건소장, 지역사회 민간 의료 부문이 원팀으로 구축돼야 다가오는 감염병, 더 세고 강력한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

기고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본 진보와 보수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하나 예일 수 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 열네 곳, 보수 성향 세 곳으로 진보 성향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민심은 진보 성향 아홉 곳, 보수 성향 여덟 곳으로 균형을 선택했다.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보는 진보와 보수는 어떤가? 교육에서 이념 논쟁은 교육 과정과 학생 간 우선순위 대립에서 시작한다. 보수는 교육 과정을, 진보는 학생을 우선한다. 모두 교육의 핵심 요소다. 학생 없는 교육 과정은 의미가 없고, 교육 과정 없이는 학생에게 어떤 교육 성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이 불가능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선거인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역설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양당제의 산물물 교착된 모양새다. 교육감은 교육 전문성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가진 교육 상식을 대변하는 자리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의 존재감이다. 그래서 교육과 정치 사이에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심각한 몸살을 앓는다.

사물의 모든 것은 양면성을 지닌다. 부정의 이면에는 긍정이, 긍정의 이면에는 부정이 포함돼 있다. 모든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 발전한다. 자신을 보호하

기 위해 갑질 속에 숨어 지내는 갑각류보다 피해를 감수하고 내부에 골격을 세운 포유류의 진화 속도가 더 빨랐던 이유는 상호작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의 경계는,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의 경계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는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공존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학교든 정부든, 교육이든 정치든, 진보는 보수를 한쪽에 치우쳐 영원할 수 없다.

교육을 진보·보수로 구분하고 재단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은 교육감이 진보냐, 보수냐에 관심 없다. 오직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중요하다. 현재의 교육 불평등 극복과 미래 교육 체제 전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 하지만 교육 문제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교육자치 관점에서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긴장된 균형이 필요하다.

교육에서만은 양당제의 산물인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교육의 본질에서 교육을 흔드는 정치 권력의 실효성이나 양당제 외풍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주어진 제도 속에서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채석 광주시교육청 사무관·행정학 박사

우리는 주변에서 '보수' '진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특히 정치 또는 선거 과정에서 이념적 편 가르기가 심할수록 사용 빈도가 잦은 단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 때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상대를 보수적, 진보적이라고 규정해 버린다.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평상시에는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진보와 보수는 확고한 경계를 만들고 서로 경쟁한다. 교육감의 정치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교육감 후보자들이 표방한 선거 공약, 지지 단체, 언론 자료 등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본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FAX 222-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